

## 해피밀 시즌 6-3호를 발간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계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었던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의 순간은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에 핀 봄”을 묵상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처럼 보였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끝에서 맞이하는 봄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피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됨 그리고 그들을 다듬으셔서 끝끝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십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4월의 묵상을 통해, 광야를 지나 십자가에 핀 봄을 맞이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며, 그분의 질서가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 창세기 1~4장

###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아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 신명기 30~34장

### 복 받는 길(신 30:16~20)

이번 통독 범위를 끝으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받는 길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는 기복 신앙, 즉 복을 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잘못된 기복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신28장)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과 부에 대한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그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모세가 본문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16,19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생명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20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에 넘어져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신 사망과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흘려 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와 사망으로 향하여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명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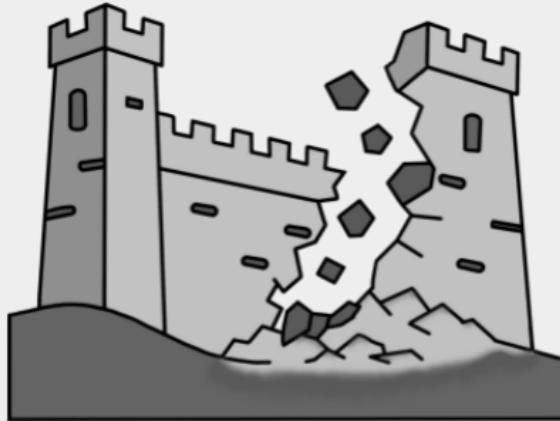
#### 묵상질문

1. 내가 지금 '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오늘 나의 앞에 놓여있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Joshua 여호수아

---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호수아 읽기



## 여호수아 1-4장

### 영원한 기념(수 4:7)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면 참으로 힘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물어보고, 이전에 나누었던 기도제목을 이야기해 주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할 때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고된 노역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심판, 죽음 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단 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요단 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설렘이 가득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요단 강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슬퍼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매번 하나님을 망각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앞장섰던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책임감과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한 리더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 때문에, 리더의 부재 때문에 더욱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념의 표시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마다 이 돌을 통해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리더가 없어도, 요단 강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배려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 묵상질문

1.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던 적이 있나요?
2.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경험이 있나요?





## 여호수아 5-8장

### 언약 백성이 싸우는 방식(수 5:2-3)

요리사는 요리로 대결을 펼칩니다. 가수는 노래로 대결을 펼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의 직업, 역할에 따라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군인은 어떨까요? 군인은 각종 무기, 지략, 지형 등을 동원해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어디에서 전쟁을 시작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될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습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논리적으로 합니다.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여 준비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실력, 나의 준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분명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우지, 얼마나 높은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에 따라 우리는 무엇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명령을 요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 순종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이해 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여리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전쟁에는 피 흘림, 손해, 극심한 고통과 눈물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이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 하셨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낭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합리와 이성을 요구하지만, 영의 싸움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비논리적인 요청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2. 주님께 순종함으로 멋진 열매를 경험해보셨나요?





## 여호수아 9-12장

### 미루는 이유(여호수아 11장 1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정복 전쟁이 마무리 되는 지점에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으며, 여호수아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명령이라는 단어는 세 번 등장하며, 그와 맞장구 치듯 신속하게 '행하다'라는 단어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고, 곧바로 순종한 것을 뜻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러한 신속한 순종을 보며,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많은 일을 미루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일을 미루십니까? 저의 경우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더 잘하기 위해서 이고, 또 하나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최대한 더 고민하고, 고심한 뜻에 행동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 잘하기 원하는 마음 속에는 그 뜻이 얼마나 고상한들 불순종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잘한 것의 기준을 자신으로 삼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두려운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능히 순종할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에는 미루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루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분은 여호수아(예수아)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완전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끔찍한 사이클을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미루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루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보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구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수 24:15).

#### 묵상질문

1. 요즘 내가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2. 미루지 않기 위해 순종하기를 결단해보세요.





## 여호수아 13-16장

### 여전히 강건함이라(수 14:10-11)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갈렙'은 우리에게 참 귀한 신앙의 본이 되어 줍니다. 갈렙의 신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충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묵상하면 갈렙의 삶이 영화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충성은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중 풍성한 열매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족과 철병거가 있음을 볼 때에도 그는 '여호와'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항상 여호와로 마음, 생각, 입술, 행동을 채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의적 언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여호와로 마음을 채웠던 것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와 감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욕망, 소원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삶을 로마서의 가르침에 따라 '산제물의 삶(롬 12: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의 삶(마 16:24)'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 '전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꺾어내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라는 말은 존전부를 뜻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의 시간 전체, 자신의 미래와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의 다양한 양상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녀 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스바냐 3:17).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봉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묵상질문

1. 요즘 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2.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 복 받는 길(신 30:16~2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우상이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준비해두신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만 누릴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 여호수아 17-20장

### 더 나은 도피성(수 20:1-6)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 현실세계에 실제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원래 레위기 율법에 있는 이론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곳이었습니니다. 본래 이것은 율법 속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당시 매우 센세이션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과실치사'의 제도가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사가 무엇입니까? 고의적, 계획적이지 않지만 실수로 혹은 부주의함 속에서 누군가를 죽게한 법입니다. 이것은 살인이기는 하나 살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러한 인간을 세심히 배려하는 그러한 고등형법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형법이 1953년 10월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 전 1000년 때 부터 과실치사라는 고상한 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적인 결과보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자의 마음에 '고의성 없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매력에 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해당되는 자비로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전혀 자비롭지 못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고의적'이라는 말은 하늘을 향한 주먹을 치켜든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 반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인 도피성을 바라보게 해 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궁극적인,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영원함과 완전함, '더 나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든,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그 분과 관계 회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짓는 죄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2. 나의 도피성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 여호수아 21-24장

### 선택의 문제(수 24:14-15)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이라고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권리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단 한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늘 선택은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자율성 속에는 참 놀라운 중심이 담기게 되어집니다. 자율성은 진정한 사랑의 보증과 같습니다. 자율성이 없는 사랑은 도무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협박하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랜 기간 진심이 전달되는 설득의 과정과, 자신의 중심을 증명해내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이라는 자율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여호수아의 촉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매 순간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분은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로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 분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분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택지를 던져주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왔으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음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딱하게 번역되어 있어, 그 사랑을 느끼기 어려우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 입증되고 또 입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택한 그 사랑에 합당히 반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합니다.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해봅시다.



# Judges 사사기

---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사기 읽기



## 사사기 1-4장

### 다음 세대(삿 2:6-10)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핵심본문은 제법 유명한 말씀입니다. 광야 2세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한 믿음의 세대가 이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세대 신앙 교육의 두 가지 부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신명기의 권면을 따라 가정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 속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여 '자기 고백을 담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지점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내재적인 두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는 가끔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를 분간하며 기성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보곤 합니다. 다음세대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열린관점이 기성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보이지 않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나름의 자리,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펼쳐본다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그 아이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죽고 떠났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다음세대의 신앙을 빚어가고 계시는 분을 잊고있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여호수아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과 동행하시며,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함께하십니다.

#### 묵상질문

1. 최근 자녀와 함께 교화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 오늘도 우리 자녀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해봅시다.





## 사사기 5-8장

# 해가 힘있게 돋움 같이(삿 5:31)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 여성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를 무찌른 뒤 부르는 찬양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노래하고, 마지막 소절로 31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눈에 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힘 있게 돋움 같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태양은 고대 근동의 사상 속에서 전차를 상징했습니다. 태양의 동그란 형상은 전차의 바퀴와 같았고,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차는 태양처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차가 몰아붙이면 도무지 제지할 수 없듯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지는 것은 결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야빈'의 철 병거였습니다(4:3).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드보라와 바락은 그 철 병거를 무찌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마치 '철 병거보다 더 강력하고 제지할 수 없는 태양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은 철병거보다 강력한 떠오르는 태양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철병거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은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돋움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사사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힘있게 돋움 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의 원수'와 같이 때문에 '망하는 것'이 더 합당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이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양처럼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를 대신해 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망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입증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가 힘있게 돋움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인하여 주를 사랑합시다.

### 묵상질문

1. 나의 삶에 야빈의 철병거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 사사기 9-12장

### 모든 육체의 생명되시는 하나님(삿 11:9)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제대로 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어지럽혀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사 입다의 출생입니다. 길르앗이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생은 이스라엘 백성 중 기생일 수 있고, 혹은 가나안 땅의 기생일 수 있으며, 혹은 바알 숭배자로서 기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생이든 간에 레위기 말씀을 모두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생이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기생과 잠자리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숭배자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며 입다를 쫓아내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는 계명을 걸어차버린 것입니다. 입다는 이후에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끔찍하게 혼란스러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해줄 수 있는 한 단어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잡류'입니다. 이 잡류라는 말은 부랑자, 불량배와 같이 비열하고 하찮은 잡다한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통해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당시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버린, 잡류들이 뒤 섞여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핵심 본문에서는 '머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각 자가 머리가 되었던 시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머리로 세우기 위한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를 머리로 내세울 때 사사기처럼 '잡류'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한 삶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머리된 것들로부터 주워담은 잡류같은 삶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후10: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교회는 사사기와 비슷하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매우 난잡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께 생각을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기(고후 10:7)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머리되시고 왕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며, 잡류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회복합니다.

#### 묵상질문

1. 내 안에 세상문화와 섞인 잡류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겸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 사랑으로 선택 (수 24:14-15)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다 드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다 드리기를 선택하는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 말씀나눔

'선택'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과 자율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취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며,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이 보장된 선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동기와 그 힘은 오직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최근 내 앞에 놓여있었던 [하나님 vs 하나님이 아닌 것] 선택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2.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해봅시다.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 사사기 13-16장

### 삼손, 이스라엘의 빛이자 어둠(삿 16:16-17)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쳇바퀴 구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을 긍휼 하게 여기사 그들을 위한 용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웠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40년이라는 어둔 터널에 임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던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16장에 이르러 삼손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며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고,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 많은 일들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그는 참으로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의 발단은 다름 아닌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여인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런 삼손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늘 이방 여인을 향해 눈을 돌렸고, 그때마다 이방 여인을 통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6장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그는 결국 그의 힘의 원천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 매일 재촉하니 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보였던 힘과 용맹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킬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과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난과 번뇌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삼손은 결국 죄와 유혹에 무너졌지만, 주님께서서는 죄와 유혹, 사망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참 승리와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묵상질문

1.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2. 주님께서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조롱, 수치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사사기 17-21장

###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삿 21:25)

죄악의 헛바퀴를 돌던 이스라엘은 결국 막장에 치닫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 이후 사사기 18장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먼저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가에게 속해있던 제사장을 빼앗고, 자신이 갖고 있던 힘으로 미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미가에게 속했던 제사장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으며, 그의 이익을 위해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를 따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가정에, 한 제사장에, 한 지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던 지파인 레위 중에 한 사람은 참으로 무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첩을 얻기 위하여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를 그곳에서 데려오긴 했으나 돌아오는 여정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 남자를 겁탈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남자 대신 남자의 젊은 첩과 머물고 있던 집주인의 딸이 희생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희생된 첩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말할 정도로 무정했습니다. 그는 죽은 첩을 집으로 데려가 열 두 토막 내어 각 지파로 보내어 벌어진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각 지파에서 분노했고 전쟁을 일으켜 베냐민을 멸절에 이르게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베냐민 지파는 멸절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 또한 매우 기이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두고 성경은 딱 한 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21장 25절)." 이 뜻은 단 순히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사기 내내 보내주신 하나님의 용사들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멈춰 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악에 이들을 건지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시야 말로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자유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설만한 물가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느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각자의 소견을 스스로 꺾고 주님께 모든 소견을 맡기어 드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소견보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고집(자신의 소견)을 부려 부끄러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 1 Samuel 룯기, 사무엘상

---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무엘 읽기



## 룻기 1-4장

### 신실한 하나님(룻4:13-17)

룻기의 배경은 지난 며칠간 나누었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단순히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소망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모든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방 땅의 여인, 며느리인 룻뿐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훗날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우여곡절 가운데 그와 결혼을 하게 되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 중 하나는 '기업 무를 자'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를 통해 낳게 될 자녀도 없고, 룻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자만 남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다했습니다.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계산하며 기업 무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것을 자처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돌아보지 않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시선은 족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다윗을 향해 나아갔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비가 사라지고 무정, 살육, 이기심,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에 참으로 낭만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가운데에는 신실한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고 계셨으며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기업 무를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건져내실 참 '기업 무를 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시는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 있나요?
2.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여 타인을 도울 수 있나요?





## 사무엘상 1-5장

###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삼상3:1-9)

암울했던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무엘 3장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내용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눈을 씻고 보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지만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했다며 그녀를 꾸짖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의 주변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영적인 시야가 안 좋아졌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주님의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과 장소가 죄로 물들었음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고 배울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나이도 많고, 지위가 높은 엘리를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현실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늘 켜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 은혜는 쉽이 없었습니다.

사무엘보다 더욱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무엘처럼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신성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등불은 늘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최후에는 하나님과 만나 영원토록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좋지 못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적이 있나요?
2. 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 사무엘상 6-10장

###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삼상8:1-9)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안위,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주변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헛바퀴 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문제였을까요? 사사기가 끝나고 선지자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젊고 건강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도 회수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블레셋을 강하게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르시던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영원히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과 뇌물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무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해야 할 것, 그들일 정말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까.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 같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처럼 그들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의 이익을 위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실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완벽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 묵상질문

1.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2.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섬기고 계시나요? 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주님이 왕이신 가정(삼상 3:1-9)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 대표기도

온 천지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왕을 주었습니다. 왕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빛으셨습니다. 때때로 다른 가정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가정 또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문화, 습관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으로 더욱 멋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D

### 나눔질문

1. 우리 가정의 최고는 누구이신가요?
2. 우리 가정은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 사무엘상 11-15장

### 기도를 쉬는 죄(삼상12:19-25)

사무엘의 시대가 마쳐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길 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이 왕을 섬기도록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왕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에 갑작스럽게 내린 우레와 비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표현이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연찮은 자연현상에 무척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길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재산의 반을 취하여 집을 나서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선 최후의 만찬 때 떡 한 조각을 가롯유다에게 건네주시며 가서 가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치못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물론 그들의 이전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못을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앞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할 경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려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꺼내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이러한 백성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랐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임이 너무나도 중하였기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기도를 쉬는 행위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엘상 16-20장

### 외모가 아닌 중심(삼상16:7)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새로 기름을 붓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기에 사무엘은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 제세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기 전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엔 이새의 첫아들 엘리압이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은 왕의 기준을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했던 사울에게 두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관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새는 그의 모든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을 받자 결국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던 막내아들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다윗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사사였지만, 그가 보는 눈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오죽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 여론, 상황 등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었을 때 형통합니다.

#### 묵상질문

1.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무엘의 관점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늘 더욱 경음히 주님의 뜻과 시선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 사무엘상 21-25장

### 예의와 존중을 다하여(삼상24:5-6)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자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사람 3000명을 모아 엔게디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달란트를 이처럼 낭용하는 사울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길가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굴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실제로 반역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다만 사울이 벗어놓은 겂옷 자락만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사울이 지금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행위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였기에 그분의 주권을 이토록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뒤를 따라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은 원수인 다윗을 '내 주 왕이여'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왕에 대한 예의를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 윗사람이라든지, 혹은 도저히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다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 묵상질문

1.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2.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 사무엘상 26-31장

### 마음에 생각하기를(삼상27:1-4)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피하게 된 이 사건은 다윗이 그가 생각한 대로 한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다윗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였습니다. 그가 연약해진 이유는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술래잡기를 뛰어넘어 그의 목숨이 걸려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힘들어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경우 마음이 무너지게 되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들어하였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로 인하여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국 행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에 생각한대로 하시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현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묵상질문

1.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2. 마음이 이끄는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 사무엘하 1-4장

### 첫 번째(삼하1:14-15)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그 시간에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아말렉 패잔병이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정보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하였기에 그가 사울의 목숨을 끊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처치해 주었으니 무언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이죠.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향방을 잘 파악해서 적당한 시기에 소속을 바꾸며 출세를 꿈꿨던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저녁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할 만도 한데, 다윗은 철저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바라보았으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와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면 이를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말렉 패잔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패잔병을 죽인 이유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행하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혹은 복수심에 의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를 못 본 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 보여준 첫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늘 포기하였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렵게 돌아갔습니다. 큰길을 택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좁은 길을 택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주님께선 마땅히 경외함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를 쉬면 죄인가요?(삼상 12:19~25)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 대표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사무엘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실망시킨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이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 1.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 2.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양심이 찢렸던 순간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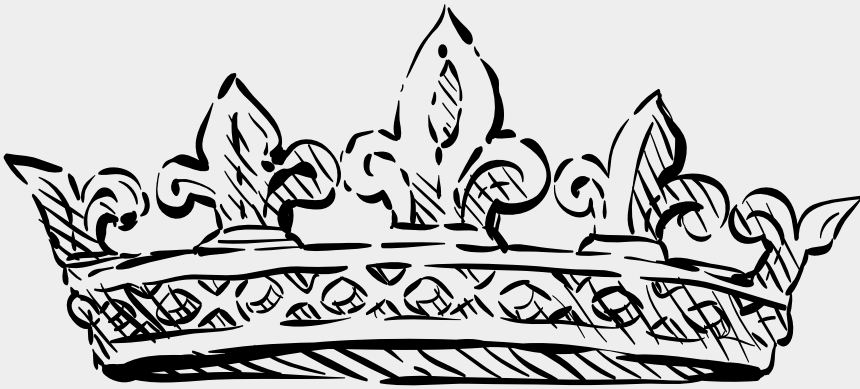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 2 Samuel 사무엘하

---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무엘 읽기



## 사무엘하 5~8장

### 기쁨의 이유(삼하 6:12~16)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진정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갈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셨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얻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슬퍼하고, 얻은 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다윗과 같이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 묵상질문

1.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지난 한 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나요? 아니면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업신여기셨나요?





## 사무엘하 9~12장

### 마땅히 죽을 자(삼하 12:5~9)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삼하 11:27)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한 사람과 부유한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행위를 들추어 내자 다윗은 악한 부자를 향하여 "마땅히 죽을 자"(12:5)이며, 네 배로 갚아주어야 마땅하다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 자신이 어떠한 죄를 행하였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칼이 다윗 가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자녀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많은 유혹 속에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과 같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려야 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애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애통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합리화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별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선함이 우리에게 없기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힘쓰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만의 죄된 본성은 무엇인가요?
2.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를 깨닫는 지혜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 사무엘하 13~16장

### 압살롬의 반역(삼하 15:4~6)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통독 범위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다윗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은 다윗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재판을 주관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피난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의 용서와 사랑에도 반역을 일으킨 그의 반역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그가 버린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무시한 채 자신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본인이 하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았으며, 정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압살롬처럼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고, 정의를 말하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정의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더 앞세우며 압살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삶의 질서까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권위 있게 여겼던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성, 감정, 관계 등)
2.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질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무엘하 17~20장

### 아버지의 마음(삼하 19:4)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할 때 '천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만큼 깨지기 어려운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다윗이 용서해 줌으로써 다시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의 용서와 은총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가하는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 목놓아 우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에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삼하 18:33)"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낄 만큼 아픈 것이 자녀의 죽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며, 아픔이었는데 목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느꼈던 인간적인 마음보다 아들을 내어주며 느꼈던 아버지의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십자가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사랑인지 우리는 잊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값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잊어선 안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 얻어진 하루인지, 내가 얻은 영생이 누구의 죽음과 바꾼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참으시고 '나' 라는 기쁨을 얻으셨는지를 기억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영생이 어떤 가치인지 되뇌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은 어떠셨나요?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 사무엘하 21~24장

### 다윗의 노래(삼하 22:1)

다윗의 인생인 다사다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기도 했지만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소제목에는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노래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왕'이심을 믿으시나요? 지금 내 삶에 닥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순간이 밀려올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요새와 반석과 방패와 구원의 뿔과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3절)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7절)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어 주시며(29절), 믿는 자의 후손까지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51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께 붙들리어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 묵상질문

1.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2. 오늘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기쁨의 이유(삼하 6:12~16)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양의 이유"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 대표기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나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시합니다. 어디에 자신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요? 나를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 전염되길 바랍니다.

### 나눔질문

1. 나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2.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